제910호 1989년 3월 4일 창간 2006년 10월 8일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희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02-552-8200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헌 편집 : 양재웅

제3차 청지기 훈련, 죄인들을 위한 말씀의 잔치!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케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시 83:16)

주 제 : 구원에 이르는 수치 (시 83:16)
일 시 : 10월 27일 (금요일) 저녁 7:00
대 상 : 모든 성도

2006년 마지막 청지기 훈련이 10월 27일 금요집회 시에 있습니다. 주제와 주제 성구를 마음에 새기며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선포하실 위임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충현의 성도님들이 모두 나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10월 27일은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은총의 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10월 27일 저녁 7시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11일), 수요 1부 예배 후 "총력 교회주변 전도" 실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이제 성도님들은 이 날이 무슨 날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총력 교회주변 전도의 날! 수요 1부 예배를 드린 후 여전도 회원 중심으로 교회 주변으로 나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고전 1:21)을 통해서 부어 주시는 은혜로 이 날을 사모하며 기다린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알 것 같지만 아직도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해서 다 함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5).

크리스마스 메시지❹ (금요집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모스)

선지자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수수께끼와 같다. 그들은 특정한 시간에 또 특정한 장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그 세대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말씀이다(암 4:12). 이제 이 세상에서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아모스가 전하는 예언의 중심 주제이다. 아모스는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다. 천사가 나타나기 800년 전의 같은 장소인 이 곳에서 목자로 살면서 일했던 선지자다. 이 곳은 어두움에 눌려 있던 곳이다. 이 곳을 향하여 이사야는 평강의 말씀을 약속하는 예언의 말씀과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선포하였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빛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으므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모세오경과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어져 있다(마 5:17).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된다. 이 열방들의 죄는 이웃과 맺은 조약을 무시한 것과 동정심을 모두 눌러 버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암 2:6). 아모스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사회를 위하여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이다.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또한 공의는 인류 사회에서 인간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타난다. 다른 사람들과의 잘못된 관계는 하나님과의 공의와 평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고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이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세 가지 면에서 찾았다.

1.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식적인 예배로 전락시킴이다.

그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 뿐 그들은 세상적인 투자와 사업 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에 빠져서 신앙의 소리를 스쳐 보내고 있다(암 5:21,22).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적 서약을 끊어 버린다는 말씀이다. 우리의 예배와 현실적인 삶에 나타나는 공의를 직접 연결시키고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암 5:23,24).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아모스가 지적하는 것은 예식에만 빠져 있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약 2:26).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공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펴야 한다.

2. 영적인 나태함이다.

아모스 6장은 사람들이 안일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비감함에 이르게 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암 6:5,6). 이는 종교가 예식으로 옮겨지고 그 예식 자체 속에서 안일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먼저 성립해야 한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주님과의 관계이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들에 의해 돌 같이 굳어져 버린 그 귀로 듣는다. 아모스는 안일함이라는 집 속에 숨어서 죽어가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한다(암 6:10). 진실을 말하는 아모스를 없애려는 제사장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아모스의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라고 보고한다(암 7:10). 그러나 아모스는 "제사장 아마샤나 왕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외친다. 그가 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다.

3. 그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마지막 때를 예언하여 주고 있다(암 8:9).

아모스는 예식을 즐기며 사는 자들이 애통하게 될 것을 선포한다. 자기 자신들을 위한 애통만이 아니라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될 것이다(암 8:10). 메시야는 그분의 존전에서 무서워 떠는 자들과 그분의 자비하심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을 갈라 놓으셨다. 아모스가 외쳤던 진정한 예배와 공의로운 삶의 중요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잃어 버려서는 안 되는 절대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리를 둘러싼 문화에 더 충실하고 있다. 공의에 대하여는 무감각한 세상이 되었다. 공과 의는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심령의 문제다. 아모스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라고 외친다. 먼저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라고 명령한다. 이것이 내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외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먼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향하여 나타나게 된다. 십자가를 붙들고 용감하게 좁은 길을 걸으라는 아모스의 메시지를 듣는다. 나의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인정하고, 수치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와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을 주 앞에 내려 놓아야 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 새 포도주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와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실천할 때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공과 의가 나타날 것이다(암 9:14).

Sermon for Next Sunday

BELIEVER'S HOPE

(1) See how great a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on us, that we w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and such we are. For this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because it did not know Him. (2) Beloved,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it has not appeared as yet what we will be.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 (3) And everyone who has this hope fixed on Him purifies himself, just as He is pure. (1 John 3:1~3)

Today's Bible message begins, "See how great a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on us, that we w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and such we are. For this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because it did not know Him"(v. 1). Faith in Jesus Christ brings you into God's family, making you His child, which the world cannot understand because it fails to recognize Jesus as Lord. This faith in the Lord God comes with wonderful hope. What kind of wonderful hope do believers have? Is their hope for something in this world or another world? Without doubt, a believer's hope is for something in another world, but it will happen in this world.

Believers hope in Jesus' appearing. Their hope is not based on wishful thinking but certain knowledge because Jesus sai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Jn. 14:3). Jesus Christ is going to return to earth. The angels told His disciples as they watched Him ascend into heaven,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the sky? This Jesus, who has been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just the same way as you have watched Him go into heaven"(Acts 1:11). Even Paul told the Colossians about Jesus' second coming, "When Christ, who is our life, is revealed, then you also will be revealed with Him in glory"(Col. 3:4). Until His return, James instructs, "You too be patient; strengthen your hearts, for the coming of the Lord is near"(Jam. 5:8). Believers do not know when Jesus is coming, but they do know that He is coming soon. Their hope in His great appearing is real.

Believers hope that when Jesus returns, they will be like Him, "Beloved,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it has not appeared as yet what we will be.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v. 2). We cannot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to be like Jesus. For believers, it is an exciting hope to think that Jesus will change our dirty, decaying, and overall terrible condition into something glorious and perfect. The change is so immeasurably beautiful and beyond human comprehension. 1 Corinthians 15:52&53 tell us,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and the dead will be raised imperishable, and we will be changed. For this perishable must put on the imperishable,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 What a change! Philippians 3:21 further says that Jesus "will transform the body of our humble state into conformity with the body of His glory, by the exertion of the power that He has even to subject all things to Himself." This is what I am talking about! My body will be like the body of Jesus' glory. How amazing is that?

Believers hope to see Jesus face to face.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v. 2). Our eyes will finally behold what we held through faith, "As for me, I shall behold Your face in righteousness; I will be satisfied with Your likeness when I awake"(Ps. 17:15). How wonderful and exciting a hope! 1 Corinthians 13:12 says, "For now we see in a mirror dimly, but then face to face; now I know in part, but then I will know fully just as I also have been fully known." Do you hope to see Jesus face to face? For believers this is a longing hope. To finally see the face of the One loved so dearly is pure joy.

What kind of preparation do believers need in order to see Jesus? They need hope in His appearing, being like Him, and seeing Him, "And everyone who has this hope fixed on Him purifies himself, just as He is pure"(v. 3). Hope in Jesus Christ is a purification process. The unholy will not see Him, "You know that He appeared in order to take away sins; and in Him there is no sin. No one who abides in Him sins; no one who sins has seen Him or knows Him"(vv. 5&6). You have to be holy, "You shall be holy, for I am holy"(1 Pet. 1:16). How can you be holy? Is it possible through your own effort? No! You have to deny yourself all the time, so that the blood of Jesus Christ can cleanse you. He died so that you can be clean. He asks us to take the cross. If you take the cross, you will be holy. Galatians 2:20 gives us this answer,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cleanse you and make you holy. Holiness comes from your total faith, "Therefore, having these promises, beloved, let us cleanse ourselves from all defilement of flesh and spirit, perfecting holiness in the fear of God"(2 Cor. 7:1). If you get involved with earthly things, you cannot see Him. "Now, little children, abide in Him, so that when He appears, we may have confidence and not shrink away from Him in shame at His coming"(1 Jn. 2:28).

My dear friend, do you have a believer's hope? Are you excited about His appearing, being like Him, and seeing Him in glory? Perhaps your real hope is in your business or children going to good schools. Maybe your hope is set on a healthy body, happy family, or beautiful house and garden. What is your hope? If your hope is fixed on Jesus, God will bless you. For Jesus is the only answer. Amen.

다음 주일 설교

신자의 소망

**(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1~3)**

김성관 목사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와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1절).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곧 그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놀라운 소망을 안겨 줍니다. 신자들은 과연 어떠한 놀라운 소망을 소유하게 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신자의 소망은 또 다른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이들의 소망은 단순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생각이 아니라 확고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11). 바울 역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4). 사도 야고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약 5:8). 신자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강림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재림을 향한 신자들의 소망은 진짜입니다.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소망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2절).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부패하여 전혀 가망이 없는 모습을 영광스럽고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은 생각만 해도 정말 흥분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52,53은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더 나아가 빌립보서 3:21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야말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나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똑같이 될 것이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을 소망

신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것을 소망합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2절).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은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시 17:15). 이 얼마나 경이롭고 흥분되는 소망입니까! 고린도전서 13:12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을 소망하십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토록 사모하는 분의 얼굴을 마침내 보게 되는 것은 가슴 벅찬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신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신자들은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과 같이 될 것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3절).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정결케 되는 과정입니다. 부정한 자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5,6절). 여러분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하셨느니라"(벧전 1:16).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자신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정결케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20은 우리에게 해답을 일러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거룩함은 여러분의 완전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고후 7:1). 만약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요일 2:28).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자로서 지녀야 할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것과, 영광 중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진짜 소망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또 건강한 몸과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을 소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정말로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수요1부 예배 메시지

그리스도의 피 (행 20:26-28)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 9:22).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 교회는 교회 될 수 없으며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는 참 교회 되며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행 20:26-28).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찬 193장).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영을 눈보다 더 희게 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구 속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 1:13,14).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위치를 완전히 바꾸었다. 죽음의 자녀에서 은총의 자녀가 되었다.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벧전 1:18,19). 구속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흘러나온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 공로, 노력을 통해서는 구속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피는 구속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긴다.

의롭다 함을 입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롬 5:9). 그리스도의 피는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 많은 종교인들이 의로운 삶을 지향한다. 그러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한다(롬 3:10). 오히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고 경고한다(렘 17:9). 그럼에도 인간들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한다.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있는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냄새나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의 극치였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 삼 일 후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 그리스도의 피만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한다.

용서함을 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엡 1:7).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우리는 진실로 회개해야 한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라!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케 한다.

거룩함을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히 13:12).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 10:10). 그리스도께는 오직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만 있었다. 이 순종의 피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으로 다가왔다. 우리의 탁월함과 공로로 얻을 수 없는 거룩함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받았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19).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만이 우리를 거룩케 한다.

평 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인해 깨어진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보혈을 통한 창조주와의 화목은 인간이 줄 수 없고 누리지 못했던 참 평안을 주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준다.

특 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19). 그리스도의 피는 이전에 감히 누릴 수 없었던 특권을 누리게 하였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한 번 생명을 내놓고 들어갈 수 있던 지성소에 아무 제약없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히 10:20).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능력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그리스도의 피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준다.

승리를 얻게 하신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계 12:11). 무흠하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1).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요일 5:4,5). 보혈의 은총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참 승리를 얻게 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배이다. 모든 조롱, 치욕과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셨다. 더 이상 죄의 속박 속에 있지 않고 의롭다 함을 얻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한 사람은 비록 환난이 있을지라도 평안을 누리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는 은총의 자녀는 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합시다"(찬 182장).

십자가의 은총으로 행복한 사랑부

김창국 (장로, 사랑부장)

사랑부에서는 정신지체 장애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오전 11시 사랑부에 속한 형제, 자매들은 충현 복지관 지하 1층에 모여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애를 가진 지체들이기에 겉으로 볼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심령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이들은 신령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일찍감치 예배 안내를 위해 주보를 품에 안고서 우직하게 예배당 입구에 서 있는 사랑부 장애우들의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임무를 찾아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에서 이들의 순수함을 느낍니다. 사랑부 장애우들이 자신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앞에서 소박하게 수줍어하는 미소를 지으며 환한 얼굴을 보입니다. 반가운 만남의 기쁨을 몸으로 표현하며 불편한 동작으로 다가오는 지체들의 몸부림들, 어느 하나 지나칠 수 없는 정겨운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힘겨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온 이들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하여 감사와 반가움으로 얼굴이 환합니다. 이 만남의 시간은 마음 속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부둥켜안은 채로, 두 손을 맞잡은 채로 드리는 이들의 기도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아뢰으로 한 마음이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나누는 사랑의 교제와 기도로 이들의 눈가에는 어느덧 눈물이 맺힙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동안 이들을 향해 가졌던 편견과 고정 관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으며,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한 영혼으로 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부를 섬기는 선생님들의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칩니다. 한 주간 동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부 지체들을 만날 때 누리는 은총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장애, 비장애에 관계없이 사랑부 지체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시선이 십자가로 모아질 때 혼란스럽던 예배 분위기도 차분하게 정돈됩니다. 비록 어눌한 말과 부정확한 음정으로 드리는 찬양일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십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부 지체들은 정말 소중합니다.

사랑부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장애 또는 비장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가?' 입니다. 비록 육신의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순수한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모든 환경은 열악하였지만 현지인들의 순박함과 복음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순순히 복음을 경청하는 모습 속에서 앞으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을 터전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회가 없는 것이 안타까웠고, 교회도 몰몬교 등의 이단 종파들이 먼저 세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의료 선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진료를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들에게 전도하기가 좋았습니다. 혈압을 재고, 진료를 하고, 약을 조제하고,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침을 놓으면서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핵심은 진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기에 순간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혈압을 재거나 재기 전에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읽히고,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1:1 전도 사역을 하고 환자를 진료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약을 조제하면서 우리가 외운 전도 문장을 그대로 말하고 "아멘"으로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한 환자가 대략 다섯 번 정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한 셈입니다. 물론 환자들의 속마음은 건강 회복을 위한 진료와 약을 받아가는 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듭 증거하는 가운데 환자들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 사역뿐 아니라 노방 전도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였습니다. 또한 여자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의료 사역을 하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전도할 때마다 주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경환(집사, 7교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2일(월) ~ 10월 10일(화)	임마누엘 찬양대	안준모
10월 3일(화) ~ 10월 10일(화)	청년2부 3팀	양기수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9월 29일(금) ~ 10월 6일(금)	12교구 5지역	예정호
9월 29일(금) ~ 10월 7일(토)	청년2부 2팀	석영식
9월 30일(토) ~ 10월 7일(토)	청년1부 5팀	김중선
9월 30일(토) ~ 10월 7일(토)	청년2부 4팀	이정탁
10월 2일(월) ~ 10월 7일(토)	6교구 2지역	김영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청년 2부 1팀

◇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다. 언어로만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믿는다. *(최낙은 집사)*

◇ 공안에게 붙잡혀 억류되었을 때에 오히려 평강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을 착착 보내어 해결케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예수님이셨다. 뜨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팀원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했다. *(최재필 집사)*

◇ 주님은 사람의 눈에는 어려워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셨으며 우리는 예비된 귀한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사역 일정 가운데서 너무도 작은 일에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 *(정재석 집사)*

◇ 역시 예수님은 일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일마다 확신을 주셨고 두려움에 처했을 때 위로하시며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 팀 사역이었지만 때로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주님의 사역은 놀라웠으며,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모두 이루어주셨다. *(강은미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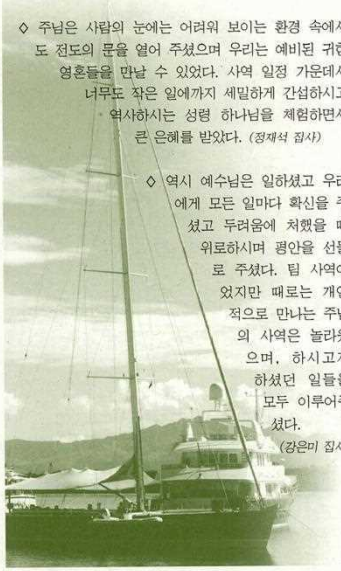
◇ 예수님께서는 100%의 자기 부인을 원하셨다. 100%의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것을 철저히 배우게 하셨다. 공안에게 잡혀있던 7시간 동안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셨다. 그 다음 날 시내 전도를 나가서 만난 가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김경성 집사)*

◇ 단기선교 사역을 통해 성실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나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온전히 순종함을 요구하신 주님, 잠잠히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온전하심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 사역지에서 전도하던 중 자신의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셨다. 그 모습에서 그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하심을 볼 수 있었다. *(이혜경 집사)*

◇ 어눌한 입술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영접하는 아이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워 또 한 번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께 한없이 감사했다.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을 하며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 주셨고 선교 기간 동안 모든 과정 하나 하나를 통해 자기 부인을 하게 만드시는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허일순 집사)*

◇ 그 곳에서 여러 지체들과 함께 사역하는 동안 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하고 나태한지 알 수 있었다. 사역 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이 있었다. 시시 때때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 예수님의 귀한 생명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 *(홍기숙 집사)*

◇ 공원 사역과 캠퍼스 사역을 위주로 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워하였다. 정부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보고 체제로 명목상 종교의 자유는 있으나 실제로는 없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어린 학생은 영접 기도 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의 영접 기도를 너무나 큰 소리로, 그리고 맑은 음성으로 하였다. *(강천석 안수집사, 팀장)*



내 삶을 운전하시는 예수님!

선교지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린다. 가정이나 직장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단기선교를 떠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런 나를 단기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는 마음을 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나 자신의 '자아'가 앞서게 되면서 오히려 교만한 마음 그리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매 순간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해 주셨다.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운전대를 잡고 나의 신앙, 가정, 사업체라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주신다면 훨씬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운행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셨다. 업체의 대표로서 자리를 비우고 전화 한 통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될 어떠한 일에도 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는 기도를 단기선교 기간 내내 드렸다. 선교 기간 동안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만을 믿고 순종하는 선교 팀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특히 인간적인 생각들을 접어 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팀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믿음의 모습임을 도전받게 되었다. 그 곳 선교지 사람들을 통해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어 감사했다.

박노익(집사, 17교구)

제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하는 기쁨

저는 어릴 때부터 온 가족과 함께 집 근처에 있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 오다가 질풍 노도의 시기라고 불리우는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제가 가진 장애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와 설교를 하실 때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모님께서는 주보에 있는 공란에다 '오늘 기도, 설교는 이러저러한 내용이다' 라고 글로 옮겨 주시긴 했지만 부모님께 불편함을 끼치는 것이 죄송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에게는 확실한 의사 소통을 기반으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마침 충현교회 에바다부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던 분의 인도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농아인을 위해 배정된 수화 통역과 문자 통역이 있는 환경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정을 찾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저의 신앙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여를 보내는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에바다부의 몇몇 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로 저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제가 경험했던 것, 배웠던 것,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예배와 집회에 빠지지 않았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선교까지 다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친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꺼려 했는데 이제는 제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대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뿌린 씨가 열매를 맺을 기색이 없는 것같아 낙심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회를 떠나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과 세상 만민이 복음을 알게 되는 그 날까지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성철(청년반, 에바다부)

힘의 원천은 십자가의 은혜!

매순간 십자가의 은혜는 저를 강건케 합니다. 특히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한 것은 저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였습니다. 저는 원래 몸이 약하여 쉽게 지칩니다. 특히 허리가 아파서 매우 고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몸이 연약할지라도 움직일 수 있었기에 교회에 나와서 꼭 말씀을 듣고 감당할 수 있는 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이 죄인을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지혜로 살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어리석을 정도로 미련한 방법일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 주시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저에게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드린 아주 작은 시간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쁨을 느끼게 하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그 이름을 불러도 불러도 가슴 벅찬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낮아지고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며 나를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해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기 위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고난과 네 손의 수고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이 용서 받아서 주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능력의 삶을 살도록 힘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김학선(집사, 15교구)

치유의 은총을 베푸신 분명한 이유!

선교를 가기 위하여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갔던 보건소에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폐에 이상이 있으니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부터 받으라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작년 말 쯤부터 몸이 자주 피곤하였고, 쉽게 지쳐 자리에 눕는 경우도 많았고, 예배 드릴 때 계속 잔기침이 나서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팀장님께 보고하고, 특히 결핵일 경우에 다른 팀원들은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균을 옮기게 될 수도 있었기에 일단 선교 훈련은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내 결심만으로는 선교를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셨고, 그 동안 다녀왔던 선교들이 새삼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말씀이 마음을 찢는 회개의 은혜로 저의 가슴을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찾아간 집 근처의 병원에서는 대학병원 급의 다른 병원을 소개해 주었고, 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애써 마음을 다독거리며 찾아갔던 두 번째 병원에서 또다시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할 즈음에 이르러서는 직감적으로 제가 폐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 병원을 옮겨다니며 기본적인 검사는 물론 X-레이, 가래 검사, C.T. 촬영, 조직 검사 등을 수차례 하다 보니 심신이 몹시 약해지고 점점 피곤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몸은 힘들어 지쳐갔지만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고집, 자존심 그리고 자기 열심 등으로 가득하였던 지난 날의 강팍했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달았음에도 또다시 추한 생각과 이기적인 욕심에 유혹되는 어쩔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몇 달 동안 검사와 치료를 통하여 예수님은 제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십자가의 은총만을 사모하게 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소망하며 매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금요집회 시에 있는 치유 기도 시간을 통해 오직 예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저의 폐를 짓누르던 종양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금요집회를 통해 신유의 은총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려고 깨끗함을 주신 예수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 삶의 전부이십니다. 고난의 연속인 삶에서 여전히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며, 복음 증거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나는 이 세상에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남은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애영(집사, 11교구)

예수님! 예수님!

유년부

-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데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최유림)
- 교회에 가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거예요. (이예은)
-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도와 주세요. 예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세요. (최창근)
- 제가 예수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든 친구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김혜연)
-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친구들과 함께 천국에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전도할께요. (정요한)

교회 탐방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매주일 3부 예배 시 찬양대와 함께 은총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30여 명의 단원들이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바이올린, 첼로 등과 같은 악기와 덜 알려진 팀파니, 튜바, 바순 등 모두 열네 개나 되는 악기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악기를 통해서 이들이 전하고 있는 믿음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오케스트라에서 봉사하게 된 동기는?

어린 시절부터 오케스트라에서 봉사하시는 아버지 손에 이끌리어 오케스트라 연습실에 매주 따라 나가면서 여러 가지 악기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도 악기로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단순한 이유지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에 힘입어서 지금에 이른 것 같습니다. *(최두루)*

1990년도에 충현교회 오케스트라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린 시절 첼로를 배우기 시작할 때 아니실을 찬양하라고 늘 권고하신 어머니 말씀대로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림 집사)*

할렐루야 오케스트라가 처음 조직되었을 때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그 때 오케스트라를 무척이나 동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손에 '바이올린'이란 악기가 들어왔고 그 때부터의 기도 제목이 저 곳에서 찬양하는 천사가 되게 해 달라는 것 이었는데, 주님은 정말 이것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박 민)*

현재 연주하는 악기와 특징은?

트롬본(Trombone)이에요. 컵 모양의 마우스피스에 입술을 진동시켜 소리 내는 금관 악기지요. 트럼펫(Trumpet)이나 혼(Horn) 등의 악기가 밸브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트롬본은 슬라이드를 사용해요. 이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관의 길이를 조절하여 소리를 내니다. *(박성은)*

바순(Bassoon)입니다. 중저음 악기이고 오케스트라에 꼭 필요한 악기입니다. 장난스럽고 재치있는 듯한 음색이 특징입니다. *(홍성찬)*

첼로(Cello)는 오케스트라에서 베이스 파트를 연주하지만, 사람의 목소리에 가까운 음색 때문에 편안한 느낌을 주는 악기입니다. 사람의 입술로 찬양할 때에도 은혜롭지만, 첼로로 하는 찬양은 더욱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Violin)이고 4줄밖에 없는 작은 악기지만 가장 많은 소리와 색깔을 낼 수 있고 가장 선택의 폭이 넓은 악기이지요. 혼자서 하는 독주도, 적은 인원이 모이는 실내악 같은 작은 공동체의 일원으로도 또 오케스트라처럼 큰 공동체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박 민)*

트럼펫(Trumpet)입니다. 금관 악기를 대표하며 오케스트라에서는 악기의 특성대로 주로 크고 다이나믹한 소리, 화려한 음색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성경 말씀 가운데서 트럼펫, 나팔은 '최후의 심판', '부활', '예배로의 부름'을 상징합니다. *(최두루)*

플룻(Flute)입니다. 고음 악기로서 아름다운 음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유경)*

오케스트라에서 봉사하면서 받는 은혜는?

오케스트라 단원 전체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가장 은혜스럽고, 찬양을 통한 무언의 교감은 더없이 감사한 부분입니다. *(이경림 집사)*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내려 주시어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홍성찬)*

매주일마다 아니실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송현정)*

여러 가지 우여 곡절이 있을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던 예수님의 도우심을 떠올리며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두루)*

현재 나의 기도 제목은?

죽는 날까지 바이올린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송현정)*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두루)*

언제든 찬양할 수 있는 곳에 늘 함께 하고 싶지만 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두 아이로 인해 많은 시간을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언제든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경림 집사)*

요즘 가장 조심하는 부분으로 욕심이 음악을 가리고 음악이 찬양을 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박 민)*

제가 교만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박성은)*

그리스도를 향해 품었던 초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유경)*

특별히 나누고 싶은 말은?

처음 오케스트라 가운을 입고 본당에 오르던 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날 사랑하셔서 어제 이곳을 저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그 적지 않은 시간들을 한결 같이 각자의 모습대로 최선을 다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아름답지요. *(박 민)*

너무 많이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송현정)*

찬양의 은사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홍성찬)*

내 안의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드릴 때에 나 한 사람, 오케스트라, 찬양대, 성도를 뛰어넘어 연합하여 찬양하는 즐거움 또한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두루)*

열네 개나 되는 각각 악기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각각의 음색이 하나로 모아져 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때로는 멜로디가 되어서 큰 소리로, 때로는 그 멜로디를 받쳐 주기 위해서 자신의 소리를 죽이며 연주하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지휘자로 삼아 맘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찬양하는 오케스트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김유정 집사, 안장)*

"지존자여 심현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풂이 좋으니이다"(시 92:1-3)라고 노래했던 시편 기자처럼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영광의 주님을 노래하고 있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매순간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찬양의 종들이 되길 기도한다.

(편집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할 렐 루 야

요즘 금요집회에서는 "거룩한 성", "거룩한 밤"과 함께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야 중 "할렐루야"를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각 교구와 모든 교육 부서 심지어 선교지에 가서도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한다. 쉽지 않은 곡인데도 저마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 소리내어 찬양을 드리고 있다. 가사를 보면 ***"권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 세상 나라들 ~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영원히 왕의 왕 또 주의 주 ~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영원히"*** 이 곡 중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곳이 많이 있다.

"할렐루야"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인데,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면서 죄인인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도록 나를 만드셨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돌아보니 분주한 삶 때문에 난 때때로 주님을 찬양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다. 이런 외식적인 모습을 회개하며 매순간 의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매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나의 본분임을 기억하며 살려 한다.

나의 연약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혹은 우리 가운데 고르지 못한 음정, 박자로 "할렐루야"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믿는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께 ***"할렐루야"***를 외쳐 본다.

이상민(집사, 할렐루야 찬양대)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322	김양순	1	장년1부	박혜자(6)
2323	정지연	19	청년1부	
2324	양연숙	6	장년2부	이진규(6)
2325	송현주	1	소망부	석성애(1)
2326	남례화	11	장년1부	전방자(4)
2327	여선권	7	청년2부	
2328	김승준	11	청년2부	김인술(11)
2329	민예원	19	청년2부	엄정자(11)
2330	최순자	13	외선부	임태주(1)
2331	이복자	13	외선부	임태주(1)
2332	이상희	3	청년2부	조증광(17)
2333	김태출	1	장년2부	
2334	박정희	1	장년1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교회소식

모임

1. 권사회 1,2지회 월례회
   일시 : 11일(수), 1부 예배 후
   장소 : 갈릴리홀

피택자 면접 및 고시

일 시 : 10월 14일(토) 오후 2:00~6:00
장 소 : 제1교육관 307호
대 상 : 피택안수집사 피택권사 전원

충현기도원 촉탁 직원 모집

1. 모집부문 충현기도원 주방 (여)
2. 자 격 세례교인 (만60세 이하)
3.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타교인)
4. 서류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 031-766-5425

◆저녁 예배시간 변경

수요 2부 예배, 금요집회 시간이 저녁 7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차안내 (* 주차시 유의 사항)

- 본 교회 주차는 주일, 수요, 금요일 등 공적예배 외에는 지정 주차선에 주차.
- 방향은 화단이나 건물을 향하여서는 차량의 앞면으로 주차.
- 교회 내에서는 5km/h이하로 서행하시고 과속방지턱이나 방지턱 표시선(황색, 검정색)에서는 반드시 일단 정지한 후 출발.
- 교회 내에서 세차나 청소금지.
- 교회주변은 거주자 우선 주차선내에 주차 금지.
- 장애인 주차 선에 일반인 주차 금지.
- 통로 주차는 언덕이 없는 곳에 하여 주시고 손으로 차를 밀 수 있도록 기어는 중립, side brake는 해제.

2006년도 제5차 학습 · 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0월 8일 (오늘)	1교시 15:00~15:50	성경 개요 (최종철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정충신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40	기독론 (이성진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장 훈 목사)	교육관 304호		
10월 15일 (다음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 개요 (김준회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란? (최성규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 세례란? (안치원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 답	교구별 장소	문 답	교구별 장소		
10월 22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찬양예배, 본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실 바람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홀) 오후 2시 30분까지 입실 바람	

10월 충현 기도의 창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2. 제3차 청지기 훈련(10월 27일 금요집회)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소서.
3.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4.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되게 하소서.
6. 모든 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7.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8.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 · 동산 · 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고제승	전성원/이정탁	김태석/이영환	유재진/박호용	이정훈/정영래	김철규/전영희	이희식/이혜숙

예배담당 안내 (10/11-10/15)

날짜	예배	설 교	사 회	기 도	찬 양
10/11	수요 I	교회 (엡 2:19-22) 김성관 목사	양재웅	김병희	교회의 참된 터는 (호산나 찬양대)
10/11	수요 II	벧엘이라 하였더라 (창 28:16-19) 최종철 목사	유재진	박현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실로암 찬양대)
10/13	금요집회	김성관 목사	임현덕		금관중주 / 11교구
10/15	주일 I	신자의 소망 (요일 3:1-3) 최성규 목사	유재진	배춘식	〈예배 전 찬양〉
10/15	주일 II	신자의 소망 (요일 3:1-3) 정현민 목사	안창덕	강철형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외 / 소프라노 장순양 (임마누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10/15	주일 III	신자의 소망 (요일 3:1-3) 김성관 목사	안치원	최지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외 / 바이올린 박민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10/15	주일 IV	신자의 소망 (요일 3:1-3) 김성관 목사	김준회	유상태	이 세상 끝날까지 외 / 소프라노 정정희 (할렐루야 찬양대 솔로이스트)
10/15	주일 V	신자의 소망 (요일 3:1-3) 나광영 목사	장 훈	고제승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외 / 벧엘 남성중창단(지도 : 김현우)
10/15	주일찬양	안디옥 교회 (행 11:19-24) 이성진 목사	이희식	홍성욱	할렐루야 제2여성중창단 / 가브리엘 찬양대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 당
금요집회		저녁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 당

기도원 집회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집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등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등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등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년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년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망 부	오후 12:15	갈 릴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탁 아 부	(주) 오전 8:30-오후 4:10 (금) 저녁 6:30-저녁 9:00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 다 니 홀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시무장로

김의철 기획위원	김은호 교구위원장	노광현 당회서기	이병학 유지재단이사	이 훈 예배위원장
남선우	김종구 충현기도원감	최무길 1교구장	이창호 예배위원	차신득 새가족양육부장
김광남 재정위원장	이종석 기획위원장	임무천 16교구장	진홍용 행정위원장	전홍렬 선교위원장
이정우 전도위원	김단용 당회부서기	한송규 전도위원	김영수 동산부장	김환기 제3교육위원장
원용철 12교구장	이형수 전도위원장	안동현 예배위원	황의만 예배위원	김구형 4교구장
최윤덕 선교위원	이계인 실로암찬양대장	박덕양 10교구장	이태식 청년1부장	정태두 전도위원
박홍규 감사위원장	권명옥 봉사위원장	조종환 제1교육위원장	배춘식 13교구장	김영달 2교구장
이실호 기도원관리부장	최지윤 시설영선부장	노영한 찬양위원장	박철구 전도위원	정청길 건축위원장
신상수 14교구장	고제승 6교구장	강철형 예배위원	김영은 전도위원	이달옥 새가족등록부장
장철환 11교구장	김승곤 탁아부장	함철주 차량안내부장	윤석민 할렐루야찬양대장	정선현 17교구장
안석현 3교구장	김연근 제2교육위원장	김창국 사랑부장	김중선 8교구장	임창식 임마누엘찬양대장
김은철 재정위원	진학래 18교구장	김신국 아멘찬양대장	전계식 대학부장	장승규 소년부장
전은배 중등1부장	석영식 초등부장	구재완 고등부장	송두섭 재정위원	최차용 예배위원
신선길 5교구장	유상태 유아부장	박상대 중등3부장	김규석 중등2부장	신광철 장년3부장

■ 부목사

이종대 2교구	정현민 선교위원회	박인기 에바다부	류병희 1교구	여국근 4교구
안창덕 5교구	나광영 17교구	정진호 11교구	고광환 13교구	위건량
김익환 14교구	장 훈 3교구	임현덕 7교구	이희식 6교구	최종철 유년부
하종철 18교구	안치원 10교구	정충신 16교구	양재웅 편집국	이성진 15교구
최성규 12교구	이재영 중등1부	이경준 대학부	이창수 고등부	김준회 8교구
윤수일 9교구	황진섭 초등부	이정훈 중등2부	김태석 중등3부	유재진 편집국
강명구 외선부	전성원	김철규 청년1부		

■ 여전도사

윤인숙 10교구	한영준 소망부	김연식 11교구	홍순애 12교구	이옥주 5교구
김말자 6교구	안태순 18교구	김정연 2교구	강덕필 14교구	최문실 7교구
전은희 16교구	김정자 17교구	김정희 15교구	이복순A 13교구	류진희 대학부
한성임 청년2부	임태주 4교구	강영미 9교구	옥미자 8교구	이복순B 3교구
강호숙 1교구	전영희 고등부	이혜숙 청년1부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희
■ 선 교 사 송요한